풋풋 발랄한 김태리 맘껏 망가진 김세정 차세대 로코퀸 도약

각각 '스물다섯' '사내맞선'서 인기

배우 김태리와 김세정이 최근 안방극장 에서 로코 붐을 이끄는 '쌍두마차'로 올라 섰다. 두 사람은 각각 주연한 tvN 토일드 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와 SBS 월화드라 마 '사내맞선'을 인기 드라마 반열에 올려 놓으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국내뿐 아 니라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며 새로운 '로 코 퀸'으로 발돋움할 태세다.

김태리는 '스물다섯 스물하나'에서 고교 생 펜싱 선수 나희도를 연기하며 방송사 스포츠기자 백이진 역의 남주혁과 로맨스 를 쌓고 있다. 자신을 끊임없이 응원해주 는 남주혁에게 설렘을 느끼는 과정을 풋풋 한 감성으로 표현해 호평을 얻고 있다.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말은 하는 강 직한 성격과 발랄한 매력으로 여성들에게 어필하고 있다.

6개월가량 펜싱 연습에 매진해 수많은 펜싱 경기 장면을 직접 소화했다. 올해 32 세의 나이로 10대 고교생 역할을 맡아 초 반에 불거졌던 우려도 곧바로 깼다. 로맨 스뿐 아니라 라이벌 고유림(보나)과 나누 는 선의의 경쟁, 문지웅(최현욱) 등 고등학 교 친구들과 쌓는 우정 등 청춘 드라마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끌어가고 있다. 이에 힘 입어 드라마는 지난달 12일 6.4%(닐슨코 리아)로 시작한 시청률을 20일 10.7%까지 끌어올렸다.

김세정은 코믹 캐릭터로 새롭게 입지를 다지고 있다. '사내맞선'에서 친구의 부탁 을 받고 나간 맞선 자리에서 자신이 다니 는 식품회사 대표 안효섭을 만나면서 벌어 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갑자기 날아오는 야 구공에 맞아 뒤로 넘어지는 장면 등 만화 에나 있을 법한 상황을 기꺼이 망가지며 연 기하고 있다. 덕분에 이야기는 "다소 유치 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많은 시청자가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 "김세정의 연기가 현실감 있다"는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덕분에 시청률은 파죽지세다. 요즘 안방 극장에서 '마의 구간'으로 통하는 10%대를 최근 돌파했다. 넷플릭스로도 공개해 21일 현재 '많이 본 TV쇼·프로그램' 세계 9위에 올랐다. 걸그룹 구구단 출신으로 KBS 2T V '학교 2017' 등 주로 학생 역할에 머물렀 지만, '사내맞선'을 통해 연기의 폭을 더욱 넓힐 기회를 맞았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미니음반 '필 마이 리듬'으로 컴백한 레드벨벳



"'빨간 맛'에서 부드러운 봄의 여신으로" 걸그룹 레드벨벳이 새 미니앨범을 발표하고 "봄을 책임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봄은 새로운 시작 같은 느낌을 주잖 아요?"

걸그룹 레드벨벳하면 여름이 먼저 떠올랐다. '빨간맛', '파워 업', '음파음 파', '짐살라빔' 등이 주로 여름철에 흥 행해 '서머 퀸'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 이다.

이번엔 새로운 변신을 시도했다. 21 일 새 미니음반 '더 리브 페스티벌 2022 -필 마이 리듬'(The ReVe Festival 20 22-Feel My Rhythm)을 발표하고 '봄 의 여신'으로 "봄을 책임지겠다"는 각 오다. 이번 음반은 지난해 8월 미니음 반 '퀸덤'(Queendom) 이후 7개월 만이 고, 봄 시즌 컴백은 2016 년 두 번째 미 니음반 '더 벨벳'(The Velvet) 이후 6년

새 앨범에는 '상상 여행'을 주제로 여 섯 곡을 담아냈다. 타이틀곡 '필 마이 리 등'을 비롯해 팝 댄스곡 '레인보우 헤일 로'(Rainbow Halo), 자신에게 애원하 는 상대를 지배하는 내용을 묘사한 '베 그 포 미'(Beg For Me), 레트로 팝 댄 스곡 '밤볼레오'(BAMBOLEO), 산뜻한 보컬이 돋보이는 미디엄 템포 '굿, 배 6년만에 봄 시즌 컴백 변신 시도 상상 여행을 주제로 한 6곡 수록 G선상의 아리아 샘플링 해 흥미 선주문량 51만여장 자체 최고치

드, 어글리'(Good, Bad, Ugly) 등이 수 같은 후각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레드벨벳은 이날 오후 온라인 기자간 담회에서 "'G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

'필 마이 리듬'은 이들의 설명처럼 바 고 도전적인 컬러를 보여줄 수 있는 좋 할 수 있는 노래로, 'G선상의 아리아'가 익숙한 만큼 봄에 잘 어울리는 따뜻하

고 우아한 곡"이라고 말했다.

멤버들은 뮤직비디오를 통해 그동안 입어보지 못한 드레스도 입고, 발레리 나로도 변신하는 등 고전적이고 우아한 매력을 뽐냈다. 웬디는 "여름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자극적인 것을 찾다 보니 '빨간 맛'을 내게 됐다"면서 "봄은 여름 과 달리 시각적인 것과 더불어 꽃향기 다. 뮤직비디오를 보면 꽃향기가 떠오 를 것"이라고 말했다.

기승전-봄과 레드벨벳을 강조하다보 해서 듣자마자 '어? 이거 아는 노래인 니 벌써 팬들의 반응이 오기 시작했다. 데?' 하면서 호기심을 느낄 것"이라고 이번 음반은 전날 기준 선주문량 51만 여 장으로 자체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침에 (회사에서)결과를 전해 듣고 흐의 'G선상의 아리아'를 샘플링해 노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팬들이 우리를 기 래를 따라 시공간을 넘나들며 "자유롭 다려줬다는 이야기잖아요. 많은 분이 레 게 여행을 즐기는 듯한 분위기"가 흥미 드벨벳이 앨범을 낸다고 하면 정말 기 를 자극한다. 슬기는 "'필 마이 리듬'은 대를 많이 해요. 똑같은 것을 하지 않는 레드벨벳의 클래식하면서 에너제틱하 그룹이기 때문에 어떤 콘셉트와 퍼포먼 스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지 은 곡"이라며 "봄처럼 설레는 스타트를 기대하시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사랑 받는 이유 아닐까요."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다큐멘터리, OTT 시장 새 킬러 콘텐츠로 뜬다

넷플릭스 '레인코트 킬러'서 유영철 조명 왓챠 '한화이글스:클럽하우스' 24일 선봬

다큐멘터리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 스)의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 다. 지난해부터 다큐멘터리 자체 제작에 힘 을 쏟고있는 넷플릭스가 첫 한국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로 해외 영화제에서 쾌거를 이 룬 데 이어 후발 OTT 플랫폼들도 잇따라 새 오리지널 다큐멘터리를 선보이며 '다큐 시장'에 뛰어들었다.

넷플릭스는 이달 초 열린 제37회 국제다 기록을 세웠다. 큐멘터리협회상(IDA Awards)에서 첫 한 노부부 이야기'(님아)로 '베스트 에피소딕 시리즈상'을 받았다. 국제다큐멘터리협회 상은 1982년 설립된 미국 최대 다큐멘터리 기구가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년 개봉한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를 원 작으로 미국, 브라질, 일본, 인도, 한국, 스 쇄살인범인 유영철을 집중조명하기도 했 페인까지 총 6개 국가에서 만난 노부부의 일상을 담았다. 원작자인 진모영 감독이 총 괄프로듀싱과 한국 편 연출을 맡았다. '님 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당시 480만 명 이 극장을 찾아 한국 독립영화 최다 관람

진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넷플릭스를 국 다큐멘터리 '님아: 여섯 나라에서 만난 통해 '님아'가 또 다른 생명력을 갖게 됐 다.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멋진 플랫폼과 콘텐츠를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큐 맛집'으로 통하는 넷플릭스는 이외

지난해 4월 공개한 6부작 '님아'는 2014 에도 범죄 다큐멘터리 '레인코트 킬러: 유 스'를 24일부터 선보인다. '콘솔워즈' '나이 영철을 추격하다'를 통해 국내 최악의 연 다. 싱가포르에서 제작했지만 한국인 프로 듀서를 비롯해 권일용 동국대학교 경찰행 정학과 겸임교수·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 심리학 교수를 비롯해 담당 형사·피해자 가 족 등 실제 사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 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의 뒷이야 기까지 공개하며 "스릴러 영화보다 더 몰 입감 높은 고품격 다큐"라는 호평을 이끌 영·김이나 등이 인터뷰어로 참여했다. 어냈다.

> OTT 후발주자 왓챠는 프로야구 꼴찌팀 한화이글스의 2021년 리빌딩 상황을 담은 6부작 다큐멘터리 '한화이글스: 클럽하우 고 귀띔했다. 이승미기자 smlee@donga.com

키 스캔들' 등 웰메이드 외국 다큐멘터리 를 독점적으로 서비스해온 왓챠는 앞으로 도 다양한 분야의 다큐멘터리를 계속 제작 ·서비스하겠다는 각오다.

웨이브는 걸그룹 마마무의 '언더독 성공 신화'를 담은 4부작 다큐멘터리 '마마무_웨 얼 아 위 나우'를 25일 공개한다. 데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마마무의 치열했던 7년 의 세월을 담아낸 것은 물론 이효리·백지

한 OTT 관계자는 "드라마·예능 등 콘텐 츠는 이미 포화상태다. 다큐멘터리야 말로 국내 OTT시장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

연예

<u> 소</u>達之동아 2022년 3월 22일 화요일 **11**

동요 열풍 몰고온 '아기싱어'

14명의 어린이와 동요 제작하는 과정 그려 2회 만에 3%대 시청률…유튜브서 큰 인기



KBS 2TV 동요 프로그램 '아기 싱어'가 뜻밖의 화제몰이에 성공하 면서 '케이(K)동요 열풍'에 성큼 다 가가고 있다. 올해 어린이날 100주 년을 맞아 기획된 '아기싱어'는 어 린이들에게 새 동요를 선물하기 위 해 14명의 어린이와 가수 정재형, 이 석훈 등이 동요를 제작하는 과정을 그린다.

12일부터 방송을 시작해 단 2회 만인 19일 3%대 시청 률을 넘기며 화제를 모았다. 일등 공신은 단연 4~7세 어린이들의 깜찍한 무대로 꼽힌다. 대중의 관심사와 다 소 거리가 먼 동요가 소재이고, 시청률을 높이기 어려운 토요일 오후 5시대 방영하는 등 각종 불리한 조건 속에 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유튜브에서 반응은 더 뜨겁다. 89cm의 앙증맞은 키를 자랑하는 4세 이시안, 광주 시장에서 '명물'로 통하는 5세 박지유 등이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이 인기다. 애니메이 션 '토이스토리' 주인공 우디의 복장을 하고 OST '넌 나 의 친구야'를 열창한 6세 윤하빈의 무대도 주목받고 있 다. 현재까지 방영된 어린이 가창자의 무대 영상들은 각 10만 뷰를 넘기며 가파르게 조회수를 늘려가고 있다. 비 록 발음은 또렷하지 않아도 음정과 박자에 맞춰 씩씩하 게 노래를 부르는 이들의 모습에 시청자들은 "귀여워서 계속 응원하고 싶다"는 댓글을 잇따라 달고 있다. 일부 에서는 2세에 동요 대회에 참가해 한국에서까지 인기를 끈 일본 소녀 노노카와 비교하며 "제2의 노노카가 탄생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연출자 박지은 PD를 비롯한 제작진은 어린이 참가자 들을 위해 "경쟁 요소를 빼고 동요를 즐기는 과정"에 초 점을 맞출 계획이다. 프로듀서로 출연한 정재형은 "교육 받지 않은 순수한 목소리가 주는 아름다움이 인생을 돌 아보게 할 것"이라며 프로그램의 성공을 자부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논문 표절 논란 홍진영. 1년 5개월만에 가수 복귀

석사 논문 표절 논란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수 홍진 영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한다. 21일 소속사 IMH엔터 테인먼트에 따르면 홍진영은 4월 6일 신곡을 발표한다. 소속사는 "과오와 불찰에 대해 속죄하는 심정으로 조심 스럽게 복귀를 결정했다"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대중에 게 희망을 전하는 가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홍진영은 2020년 11월 조선대 무역학과 재학 시절 제출한 석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한 달 여 만에 조선대 측에서 표절로 결론을 내리면서 홍진영 은 사과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CGV, 내일부터 'THE 장국영 특별전' 연다

CGV가 홍콩 영화배우 장국영(장궈룽) 사망 19주기를 맞 아 'THE 장국영 특별전'을 개최한다. 23일부터 4월 5일 까지 열리는 특별전에서는 대표작 '해피투게더 리마스터 링' '아비정전' '동사서독 리덕스' 등을 상영한다. CGV 용산아이파크몰 등 3개 극장에서는 '부에노스 아이레스 제로 디그리' '동성서취'를 추가로 볼 수 있다. 2003년 4월 1일 세상을 떠난 장국영은 1990년대 다양한 작품에 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한국에서도 폭발적인 인기 를 누렸다.

이석훈·갓세븐 영재, MBC 라디오 DJ 발탁

가수 이석훈, 갓세븐 영재 등이 MBC 라디오 DJ로 나선 다. 21일 MBC에 따르면 봄 개편을 맞아 이석훈이 오전 11시부터 MBC FM4U '이석훈의 브런치카페'를 진행한 다. '김현철의 골든디스크' 대신 신설한 프로그램이다. 영 재는 오후 8시부터 'GOT'7 영재의 친한친구'를 맡는다. '꿈 꾸는 라디오'를 대신해 2013년 막을 내린 '친한친구'를 다시 내보낸다. 오전 5~7시에 생방송하는 '세상을 여는 아침'은 안주희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개그우먼 정경 미는 표준FM '박준형, 정경미의 2시 만세'에서 하차한 다. 빈자리는 당분간 스페셜 DJ가 채운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